

“소상공인 힘내세요”

KB금융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코로나 극복에 힘 보태



1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 KB금융 전하는 마음, 피어나는 희망 캠페인

KB금융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그룹 비상 경영 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원 노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그룹 비상 경영 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원 노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룹 비상 경영 위원회는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참여한다. 중소기업과 영세가맹점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물품과 키트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를 할인하는 등 비금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에도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합한 상환 기간(3년 이내)을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또 유예기간이 끝난 후 고객의 지속적 상환 부담이 예상될 경우 정상화 및 자구 계획 이행 가능성을 점검해 내부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부실 전이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이웃과 함께하는 투(TWO)게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벌였다.

투게더는 KB국민은행이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코로나19로 매출이 준 요식업 소상공인과 아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 20여 곳에 대금을 선결제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식당에서 일팔 구매한 반조리 밀키트·빵 등을 친환경 보령 종이상자에 담아 8회에 걸쳐 25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화훼농가 돕기...‘전하는 마음, 피어나는 희망’ 캠페인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에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전하는 마음, 피어나는 희망’ 캠페인을 벌였다.



2



3,5 KB국민은행, 투(Two)게더 소상공인 지원사업 4 KB금융지주 여의도 본점 신관

윤종규 회장, 양종희 부회장, 허인 은행장 등은 여의도역 근처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프리지어(꽃말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를 나눠줬다.

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KB 소호 컨설팅센터’ 운영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선제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KB 소호 컨설팅센터’를 자영업자 사업경쟁력 지원에서 위기관리 중심의 컨설팅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수익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입지·상권분석, 경영(마케팅·홍보 등), 특허, 세무, 법률 등 현재까지 총 1만3천400여 건의 컨설팅을 제공해 자영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웃사랑 행복 나눔...줄 잇는 기부 동참

KB증권은 전국 600개 비상 경영 지역 아동센터에 1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전달했다. 또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은 대구·경북 지역 119구급대원 및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 응원 키트(피로해소제·개인 위생용품 등)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KB스타즈 배구단은 연고지인 의정부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용 방호복 1천 벌을 기부했다.

KB국민카드는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 일시불 이용 건 분할 결제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펼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역 경제 영향 분석과 정책 방안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카드 매출 빅데이터 자료를 무상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도 도왔다. ♣



5

Future is Calling

중학교 1학년 육상선수 배운진과 최명진

“가장 힘들 때요? 열심히 뛰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기록을 깨지 못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냐구요? 당연히 놀고 싶죠 근데 놀고 싶다고 다 놀면 기록은 영원히 못 깰 것 같아요ㅎㅎ”

어리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한계에 도전하는 배운진, 최명진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KB금융그룹은 두 어린 선수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다
KB금융그룹

부원여중 100m 육상선수 배운진

이리동중 100m 육상선수 최명진